



발행인 허재준
편집인 강신혁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3년 8월 15일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올해 고용은 긴축 통화정책과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까지의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의 연착륙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원은 2022년 12월에 전망하였던 것보다 취업자 수 증가를 상향조정하면서 하반기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은 상고하저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망하였다. 취업자 수는 올해 하반기에 약 253천 명 증가하여 2023년 연간 기준 약 3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I.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3년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97천 명, 2분기에는 346천 명 증가하면서 상반기 372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연말에 예상되었던 수치보다 유의하게 높다. 고용률은 2021년 2월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실업률은 동 기간 감소 중이다.

과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와 같이 취업자가 감소했던 시기 이후에도 감소분을 뛰어넘는 고용 증가가 2년 이상 이어진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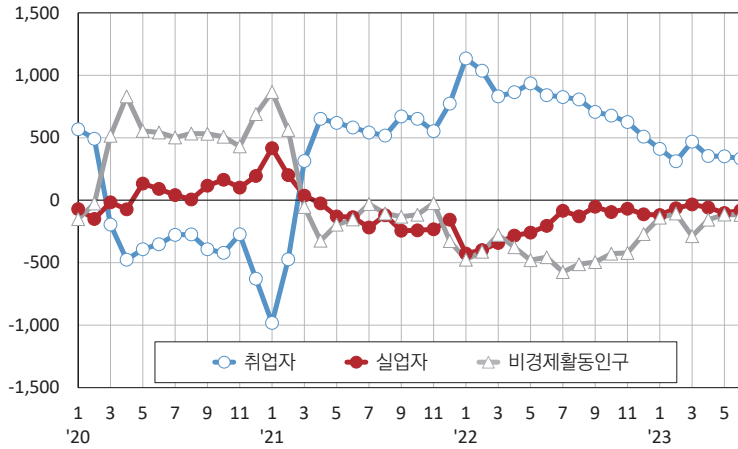
는 인구가 40만~60만 명가량 증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컸다고 하더라도 고용률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구 증가폭이 1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폭을 뛰어넘는 취업자 증가가 큰 폭의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위기 시 고용률 감소의 기저가 반영된 2021년 이후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6월 63.5%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노동시장이 양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양호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예상보다 둔화 속도가 완만한 연착륙 형태를 보이는 노동시장

상반기 취업자 372천 명 증가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취업자 증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2022년 하반기까지는 남성과 여성 취업자가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여성 위주로 증가했다. 남성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이러한 여성 고용의 증가는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여성이 많이 분포한 산업·직업에서의 취업자 증가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후에 서술한 부문별 고용동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II.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여성 위주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둔화된 실업률 감소세 유지

실업자는 2023년 상반기 내 감소를 이어가며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상반기 실업자 수는 859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분기별로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분기 72천 명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81천 명 감소하였다. 동기간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감소한 실업자는 취업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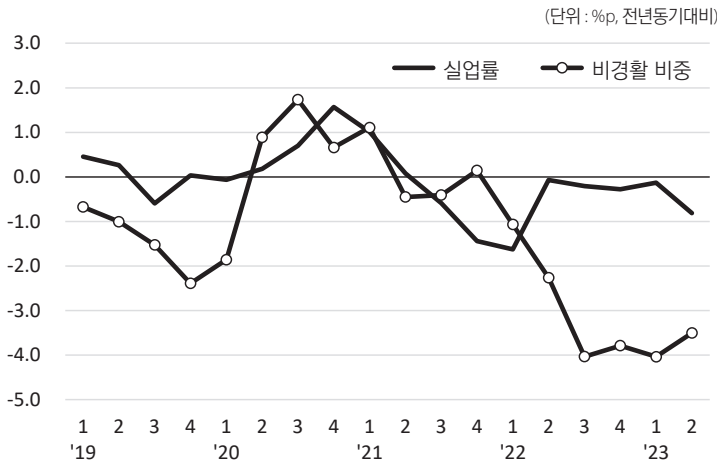
청년층 실업률 상반기 감소

인구 변화를 고려한 실업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실업률의 감소는 20대와 60세 이상이 주도하였다. 20대를 세부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반 실업률은 2022년 4분기 수준의 감소세를 2023년 1분기 유지하였다. 20대 초반 고용률 증가세가 1분기에 축소되었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세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2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여가 1분기에 크게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2분기에는 실업률 감소세가 확대됐고 고용률도 감소 전환되었기 때문에 1분기에 나타났던 경제활동 이탈 경향이 2분기에 더 강화되었다.

20대 후반은 1분기 실업률 증가세가 확대됐고 고용률은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이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했고 일부는 경제활동에서 이탈했다는 것인데, 적어도 실업률의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20대 초반보다는 후반에서 1분기에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는 실업률은 감소 전환된 반면 고용률 증가세는 확대되었다. 다만 고용률의 변동은 실업률 변동폭만큼 아니어서 감소한 실업자의 일부는 취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여 20대 후반도 서서히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2023년 1분기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지만 2분기 들어 감소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매년 1분기에 나타나는 고령층 실업자

[그림 2] 30대 여성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



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각각의 여성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에 의해 발생하는데, 2023년 1분기에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임시적 일자리를 그만둔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해당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즉 2023년 1분기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고령층 전반에서의 구직활동 감소와 더불어 이전에 노인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했던 고령층에서도 작년만큼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의 영향이 사라진 2분기 들어서는 실업률 감소세가 둔화하여 실업률은 전년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고용률은 증가세가 축소되어 일자리 상실에 해당하는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은 성별로 보면 여성 실업률 감소세가 눈에 띈다. 전년 상반기 대비 2023년 남성 실업률은 0.2%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5%p 감소하여 여성 실업률 감소세가 남성의 두 배 이상이었다.

여성의 연령별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변화행태를 보면 청년층과 30대의 변화가 가장 특징적이다. 15~29세는 2023년 상반기 실업률의 감소세가 강화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22년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다 2023년 증가로 돌아섰다. 15~29세 여성은 고용률도 감소로 돌아선 상황인 만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감소한 실업자도 구직활동에서 이탈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는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의 감소세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4분기 기간 동안 매우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즉 30대 여성은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이행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실업률 증가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구직활동 1개월 이내에 고용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30대 여성의 취업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의 개념에서 지난 1년 내 일자리를 그만둔 미취업자는 2023년 상반기 30천 명 증가하였다. 특히 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미취업자가 상반기에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실업자는 1분기 증가하고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됐지만,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반기 내 증가하여 자발적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2분기 들어 더 강해졌다. 반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은 2023년 상반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모두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확장실업률의 경우는 실업률 감소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여전히 2%p대의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2023년은 실업률의 영향이 거의 사라지면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확장실업률 감소를 견인하

노인일자리에 대한 고령층의 관심 변화

3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으로 빠르게 이동

**확장실업률은 감소하나,
노동시장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

었다.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주로 취업 욕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구직자의 감소에 의한 것인데, 잠재구직자는 상반기 405천 명 감소하였고 여기에 감소한 실업자를 더하면 상반기에는 총 482천 명의 취업 욕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반면 취업자의 증가는 372천 명이다. 즉 취업 욕구가 있는 미취업자 중 상당수는 취업으로 이동하였지만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취업이 가능하지 못한 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반기 확장실업률이 2.1%p의 감소를 이어나가며 호조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노동시장은 점차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반기 잠재구직자의 감소와 이동을 보면 특히 20대에서 구직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는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했고 잠재구직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그 외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역시 증가세를 키워가는 모습이였다. 즉 20대의 경우 잠재구직자 및 실업자의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어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앞으로 20대에서 노동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20대 청년층에서는 2023년 상반기 들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증가하고 있어 세부항목을 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상반기에 154천 명 감소하여 450천 명 감소했던 2022년 하반기보다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81천 명 증가하여 증가로 전환됐지만 여성은 235천 명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성별에 따른 변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사유별로 육아가사 및 통학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쉬었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하였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쉬었음의 증가이다. 쉬었음의 증가세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증가폭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 이

는 2023년 고용 회복이 여성 고용 친화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남성 고용률은 정체된 반면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쉬었음의 증가는 연령별로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주로 나타났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주로 지난주에 직장을 원하지 않았던 인구에서 증가했고 구직단념 여부로 구분하면 비구직단념자에서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반기에 늘어난 청년 쉬었음 인구는 구직을 포기해서 쉬었다기보다는 선택에 의해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60세 이상 쉬었음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60세 이상 역시 청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난주 직장을 원하지 않아 선택적으로 쉬었던 인구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또한 60세 이상은 연로 사유 비경제활동인구가 쉬었음과 거의 반대하는 추세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즉 증가하는 고령층 쉬었음 인구의 일부는 연로 사유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청년층 고용 둔화,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 고용 증가

현재의 인구 변화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취업자 변동 규모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연령대 인구가 모두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상당 부분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연령대는 인구가 감소 중이므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고용상황을 파악할 때 고용률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 30대 고용률은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중이며, 40대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연령대 고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50대도 고용률 증가폭이 감소하긴 했지만, 중사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돌봄 수요 관련 산업 등에서 꾸준한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대 청년층 고용률 증가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나, 지난 2년 동

**쉬고 있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

〈표 1〉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2021	2022	2023
15~29세	인구	-135	-195	-182
	취업자	36	208	-103
	실업률	0.2	-2.7	-0.5
	고용률	1.1	3.4	-0.2
30대	인구	-150	-133	-90
	취업자	-160	23	37
	실업률	0.3	-0.9	-0.1
	고용률	-0.7	1.8	1.6
40대	인구	-71	-72	-110
	취업자	-78	22	-51
	실업률	0.1	-0.5	-0.1
	고용률	-0.3	1.0	0.4
50대	인구	-13	35	4
	취업자	-1	244	68
	실업률	-0.1	-1.2	-0.1
	고용률	0.1	2.5	0.8
60세 이상	인구	665	574	519
	취업자	321	443	421
	실업률	0.5	-1.2	-0.8
	고용률	0.4	1.6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안 청년고용이 양적 지표 측면에서 큰 회복세를 보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대를 위주로 청년층 고용을 살펴보면, 청년층은 2021년 2분기 이후 취업자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해 왔다. 2022년 상반기 이후로는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어 현재 취업자 감소 중이다. 전체 고용률은 아직 감소하지는 않았다. 고용률로 판단했을 때, 20대 초반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20대 초반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산업 업황이 점차 둔화되는 영향, 즉 경기적 영향의 고용 변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세부연령을 구분해서 산업별로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비대면 특수가 사라진 운수창고업, 산업 생산 침체가 나타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2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간호 인력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최근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대면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는 20대 전체에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20대 전체에서 감소 중이다.

20대 초반 청년층 재학자는 임시직 내수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다. 이들 산업의 전체 고용동향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다. 숙박음식 취업자 증가가 2023년 초 정점에 달한 후 둔화세이다. 졸업생의 경우 여성 고용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간호 인력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가 컸다. 그 기저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 2023년 상반기 고용이 감소 중이다.

20대 후반의 경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대 후반 산업별 졸업자 고용 감소도 특별히 이 연령대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고용이 침체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조업 업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 영향이 20대 후반 졸업자 남성 제조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도소매나 운수창고 취업자 감소도 업황이 전체 연령대 고용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숙박음식 고용 증가는 재학자 위주였지만, 산업 전체 회복세가 충분히 관찰되면서 졸업자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 고용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연령대에서만 관찰되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 등락의 영향하에서 청년 고용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산업에 청년 고용 비중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 청년 취업자의 조정이 발생했다. 반대로 청년 고용이 증가세에 있을 때는, 현재 침체 중인 산업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청년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산업 경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 등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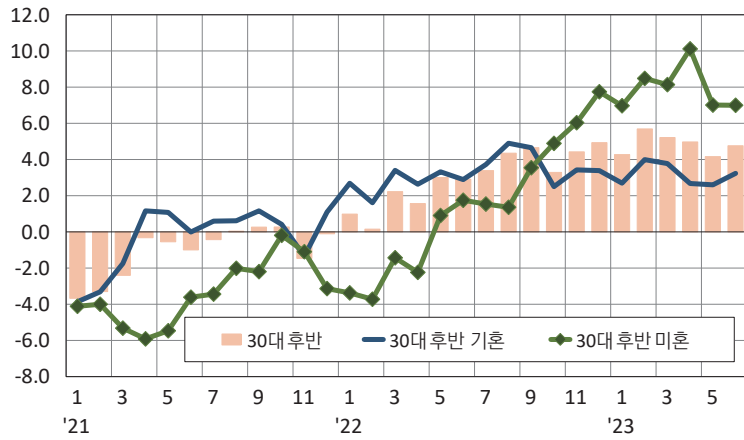
30대는 여성 고용의 변화가 주요 특징이다. 인구가 10만 명대로 감소 중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감으로 이 연령대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고용률 증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어 현재
취업자 감소 중인 청년층**

**산업 경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등락을 보이는
청년층 고용**

[그림 3] 30대 후반(35~39세) 여성 혼인여부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혼인상태 변수 답변 중 '미혼', '사별', '이혼' 을 미혼로, '유배우' 를 기혼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 증가 중인 30대

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30대 여성의 고용률 신장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 증가폭이 4%p 이상 크게 나타나면서, 이 연령대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혼인여부로 인해 크게 달라진다. 기혼여성, 미혼여성 모두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미혼여성에서 더 컸다. 특히 30대 후반 미혼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다.

30대 남성 고용은 여성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는데, 고용률이 상반기 다소 감소했다. 산업별 30대 남성 취업자 변화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증가했으나 30대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의 경우 30대 여성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을 넘지 못하고 취업자가 감소했다. 다만 고용률은 소폭 증가 중이므로 청년층에 비해서는 고용 둔화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40대 후반 연령대의 인구 감소폭이 큰데, 40대 초반 인구 변화 추세를 볼 때 2023년 내 감소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취업자 감소폭 자체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50대도 30대와 같이 성별 고용 상황이 상이하다. 고용률 변화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고용 상황이 확연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2분기 이후 50대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중이며, 50대 초반 여성 고용률 증가폭이 2022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데 비해 50대 후반 여성 고용률 증가폭은 2023년 2분기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0대 후반 여성의 고용 변화 특징이 점차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 고용 변화 특징과 동행하는 경향이 짙다. 돌봄 관련 고용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통내수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인구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자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다. 다만 취업자 증가 중 일자리사업 관련 고용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고 있다. 65세 이상 공공행정, 보건복지 관련 임시직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농림어업, 감시단속·청소관련 고령층 임시직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고령층 종사 비중이 높은 전통내수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증가했다. 일자리사업 관련 고용 증가분이 줄어든 자리를 민간부문 고령층 고용 증가가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산업으로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고령층 고용의 증가폭 규모가 전체 고용 증가폭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60대 이상 고령층 고용 양상이 따라가고 있는 50대 고용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될 수 있는 40대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60대 고용

3.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

취업자 증가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해보면 우리나라 고용 변동폭의 대부분이 상용직임을 알 수 있다. 상용직 변동폭에 비하면 다른 종사상지위 취업자의 변화분은 매우 작다. 상반기 상용직은 52만 명이 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고용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고용의 신장을 보이는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 유일하다.

상용직 취업자 증가를 산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제조업 상용직 증가가 둔화됐지만 돌봄관련 일자리 수요 증가와 연관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이 크게 늘었다. 도소매업에서는 다른 종사상지위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은 증가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에서는 기존 비대면서비스업 상용직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 업황 회복에 상용직이 가장 크게 반응해서 상반기 약 10만 명가량 상용직이 증가했다.

임시직은 2022년 3분기 감소 전환된 이후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임시직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증가폭 둔화 영향이 가장 컸다.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임시직 종사자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202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들 임시직은 증가 중이다. 기존에 임시직이 감소하던 도소매업, 업황이 좋지 않은 제조업, 건설업, 비대면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운수업 등에서 임시직 감소세가 이어진다. 일용직은 종사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이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감소 중이다.

2022년 1분기 이후 고용주와 자영자는 증가 중이다. 다만 그 규모가 상용직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고용 신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고령층 농림어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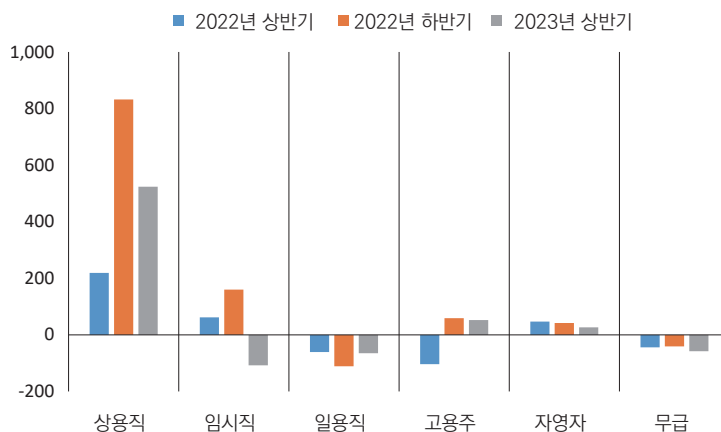
4. 제조업 고용 증가세 둔화

2023년 상반기는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에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출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월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CT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었다. 부진한 제조업 경기지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나타난다. 제조업은 상반기에 업황실적, 매출실적, 생산실적 등 대부분 지표가 전년대비 하락했다.

생산, 수출 등 부진이 이어진
제조업은 고용도 모든 지표에서
증가세 둔화

[그림 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조사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되어 상반기에 4만 3천 명 감소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한편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큰 폭 증가한 영향(1월부터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조치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으로 상반기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제조업 피보험자는 약 1만 명 증가에 그쳤다.

상반기 중 제조업 고용 둔화세는 비교적 완만했던 편

다만 제조업 고용 변동을 월별로 보면, 경할 취업자는 3~4월 중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5월 이후로는 다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5 참조).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폭 축소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 규모가 적은 수준에 머물고는 있지만 2분기까지는 감소로 전환되는 등 변동 없이 수개월째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상반기 생산과 수출 등 제조업 경기 상황과 지난해의 강한 고용 증가 기저까지 감안할 때, 제조업 고용 둔화세는 당초 예상보다는 완만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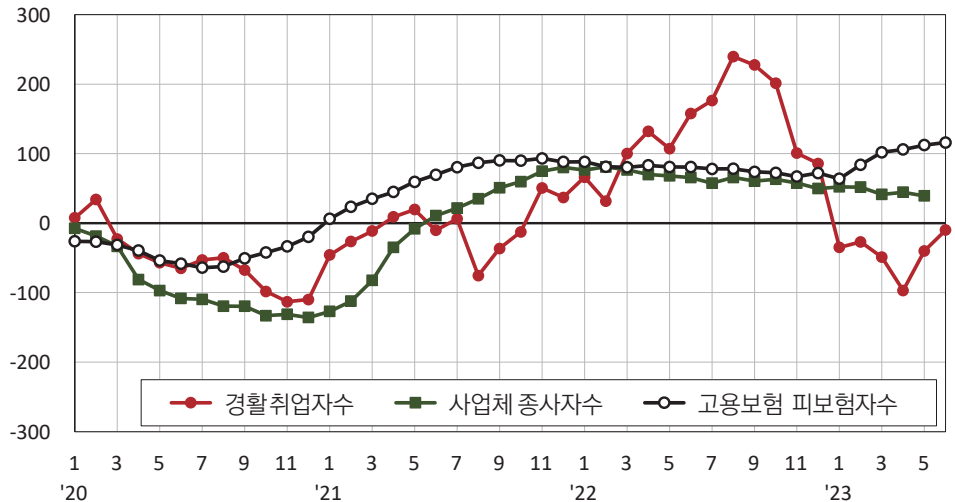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이 부진했던 전자·컴퓨터·통신기기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고용 개선 기대

제조업 세부업종별 고용은 상반기 중 대체로 비슷

한 흐름이었다. 생산 및 수출이 큰 폭 증가를 지속한 자동차 제조업은 업황 호조로 고용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추세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 물질 제조업과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도 상반기에 고용 증가 흐름을 유지하였다. 금속가공과 기계장비 제조업과 같은 기계 산업도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았으며, 전기차 수요 증대로 이차전지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도 증가를 지속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는 생산 및 수출 호조가 전망되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이차전지 수요 증가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전기장비 제조업은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함께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도 기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이들 업종들이 하반기 제조업 고용지표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고용은 상반기에 둔화세가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감소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되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고용도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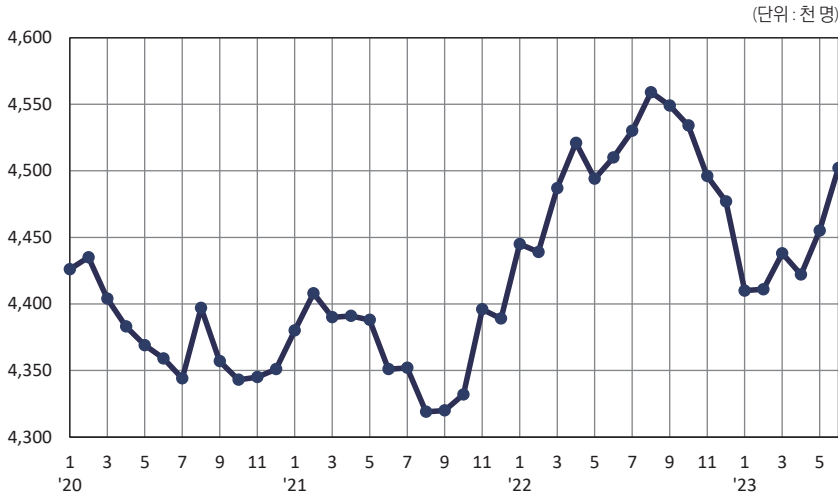
[그림 5] 제조업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그림 6]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5. 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

올해 상반기 건설업 고용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 활 취업자는 건설업 경기 부진과 전년 기저 영향이 더해져 감소폭이 확대되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2분 기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시 매월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올해 건설기성이 건축 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는 달리 모든 지표들에서 건설업 고용 부진이 나타났다. 상반기의 건설업 고용 부진이 하반기 중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 지수다. 1분기에 소폭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건설경 기 부진이 이어지며 하반기 중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 또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하반기 건설 경기는 부진한 건설 지표들과 불리한 거 시경제 환경으로 상반기보다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 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고용 역시 하반기 중에는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2023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4만 명 증가하여 전년도 상반기 이

후 고용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두드러진 고용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은 대면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으로 음식 및 숙박업은 2023년 상 반기 취업자가 16.4만 명 증가하였다. 음식 및 숙박업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간 19만 명이 감 소했는데, 이후 2022~2023년간 19.7만 명이 증가하 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코로나19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던 업종으로 2023년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점 차 확대되면서 상반기 3.7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 다. 계절조정 기준 2023년 6월 53.5만 명으로 코로나 19 이전 고점이었던 2019년 12월 수준(53.3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과 여가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주 는 해외출입이 코로나19 이후 재개되었으나 내국인 출국자에 비해 외국인 입국은 회복 속도가 느리게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출입 기록이 코로나19 이후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의 출국은 활발해지 고, 외국인의 입국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관광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련 업종의 고용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 감소세 전망*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 회복*

〈표 2〉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서비스업 전체	-100	31	695	474
도소매업	-142	-177	-38	-54
운수창고	66	69	112	-30
숙박음식	-98	-92	33	164
정보통신	-14	23	95	54
금융보험	-18	23	-33	13
부동산	-11	-13	35	-11
전문과학	16	42	75	73
사업지원	22	49	62	-4
공공행정	-18	67	73	25
교육	-65	1	79	10
보건복지	141	143	223	173
여가예술	34	-38	13	37
협회,수리,기타개인	-53	-65	-20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7. 전문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고용 증가

전문서비스업 고용 증가 지속

2023년 상반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4만 명 증가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7.3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둔화가 발생했지만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으며 기저효과 영향을 받지 않고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 통계자료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4년 동안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가 2023년 하반기 이후 고용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보통신업은 2023년 1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분기 추세에서 벗어난 취업자 증가로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진 영향으로 화물 및 특수차 등 관련 직종 고용 감소

8. 경기부진으로 인한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고용 감소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와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고용이 크게 증가한 업종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취업자가 감소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만 명 감

사회서비스업 고용이 둔화 중이나 임시직 대신 상용직, 단순노무직 대신 전문직, 서비스직 중심으로 고용 증가

소하였다. 직종별로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관련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주로 화물 및 특수차, 지게차, 크레인 운전과 같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고용둔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경기부진으로 2023년 5월 들어 취업자가 3만 명 감소하였다. 두 업종 모두 택배 및 배달업무,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직종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9.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둔화

코로나19 이후 경기악화로 인한 고용부진으로 중장년층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23년 민간지원 위주 일자리사업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의 공공행정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고령층 중심으로 교육 관련 전문가와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보조원과 같은 직군으로 나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서비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17.3만 명 증가하였는데,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직·서비스직, 임시직이 아닌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36시간 이상 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내 직접 일자리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다. 공공형보다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III. 2023년 하반기 고용 전망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2022년 연말에 본원을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을 위해 상반기 부문별 경기와 고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0.9% 성장하였다. 이는 2021년 경제성장률 4.1% 및 2022년 경제성장률 2.6%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된 모습이다. 그중에서 제조업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약 -3.3% 및 수출은 약 -2.0% 성장을,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지출은 각각 약 3.4%와 4.6% 성장을 보였다.¹⁾ 제조업과 고용 및 순수출과 고용은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반면에 서비스업과 소비는 모두 고용과 상관관계가 크고 동행적으로 변동한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혹은 산출물 시장과 완전히 괴리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층과 여성, 여성 중에서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구조적인 요인으로서의 고용 증가세를 보였고, 청년과 20~40대 남성이 경기와 함께 고용둔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원은 2022년 12월에 전망하였던 것보다 취업자 수 증가를 상향조정하면서 하반기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은 상고하저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망하였다. 이는 상반기 고용동향이 복합적인 모습으로 유지 혹은 변동할 것이라는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고용의 경우, 제조업 경기와 고용 간 시차 등을 고려하면 고용이 둔화될 수 있지만 둘 간의 약한 상관관계와 현재까지의 완만한 조정

속도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작년에 컸던 고용회복 후의 기저효과, 인구집단별 구조적·경기적 고용 양상 등을 같이 고려하였다. 해당 요소들을 전망모형에 고려하였을 때 표본 외 예측력(out-of-sample forecasting)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3>은 서술한 요소들을 고려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하반기와 연간 노동시장 전망치 결과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약 253천 명 증가하여 2023년 연간 기준 약 3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증감률로는 하반기에 약 0.9%, 연간으로는 약 1.1%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인구증가를 고려하였을 때 하반기에 약 62.9%, 2023년 연간으로는 약 62.6%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업률은 하반기와 연간 각각 약 2.4%와 약 2.7%로 전망하였다.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고용이 유의하게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적으로는 효율적인 수준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다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과 산업 단위에서의

하반기 253천 명, 연간 312천 명
취업자 증가 전망

<표 3> 2023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단위: %, 천 명)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7,858	28,320	28,089	28,230	28,573	28,402
(증가율)	3.4	2.4	3.0	1.3	0.9	1.1
(증감수)	941	692	816	372	253	312
실업률	3.2	2.5	2.9	3.0	2.4	2.7
고용률	61.6	62.5	62.1	62.2	62.9	62.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2023년 7월 25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조업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5%, 수출은 -0.6%, 서비스업은 1.9% 그리고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1.5% 성장하였다.

비효율적인 요소를 식별하고 경감시킴으로써 미스
매치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상반기 고용이 전망보다는 좋았지만 모든 집단에
서 고르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후생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
제주체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것
이다.